

순천, 국내 최초 하천 수상 퍼레이드 연출

‘정원드림호’ 흑두루미·쌍뿔어·칠게 등 순천만 대표 동물 캐릭터화 복원된 뱃길따라 관람객·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주·야간 진행

순천시가 국내 최초 하천 수상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기존 정원드림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해 특별함을 더했다.

지난해 순천시는 고려초기 순천 동천에 배가 드나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동천 뱃길 복원에 나섰다. 2023순천민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새롭게 복원된 뱃길을 따라 국가정원과 도시를 왕복하는 ‘정원드림호’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는 ‘정원드림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더해 수상 퍼레이드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 일원 등·식물을 모티브로



하어 기존 ‘정원드림호’를 업그레이드했다. 흑두루미, 쌍뿔어, 칠게 등 순천만을 대표하는 동물들을 캐릭터화했으며,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화훼와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했다.

수상 퍼레이드는 4월부터 10월까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2회 운영된다. 퍼레이드 선박에는 실제 관람객이 탑승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한편, 야간에는 조명 등 화려한 연출을 더해 동천과 국가정원의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한편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한 정원드림호는 일일 26회 운행될 예정이며, 100% 현장발판으로 진행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사랑받았던 정원드림호가 올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입고 다시 태어났다”며, “주·야간에 진행되는 수상 퍼레이드는 각각 다른 매력을 선보여 국가정원과 순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멋진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고흥우주항공축제 우주인 아이디어 공모전

‘우주쓰레기·우주식량 해결방안’ 주제

고흥군은 오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14회 고흥우주항공축제의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축제의 관심을 높이고, 우주항공 축제로 고흥의 이미지를 정립하고자 ‘고흥 우주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우주쓰레기 및 우주식량 해결방안을 주제로 금부상하는 우주산업의 새로운 ‘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프로그램으로 고흥우주항공축제를 ESG도 생각하는 관람객들에게 사랑받았던 정원드림호가 올해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입고 다시 태어났다”며, “주·야간에 진행되는 수상 퍼레이드는 각각 다른 매력을 선보여 국가정원과 순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멋진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30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들은 심사를 통해 10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공모전 참여자 중 축제장을 직접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는 1일 50명에게 소정의 고흥 특산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나로호와 누리호 발사 장소에서 열리는 지구 밖 우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우주항공 축제로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견학, 나로호·누리호 실물 전시, 태양계 또 다른 온라인 축제장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우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제안서와 청렴 동의서를 작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고흥=신용원 기자



곡성, ‘쌀로 만든 디저트’ 교육 실시

다음달 9일까지 진행

곡성군은 MZ세대를 중심으로 쌀 가공식품을 찾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쌀로 만든 디저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16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28일 개강식을 가졌고, 오는 5월 9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다.

우리 쌀을 이용해 쌀 도넛설기, 가루쌀 활용 베이커리, 쌀 머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이 병행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쌀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쌀 소비량은 3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쌀을 활용한 식품에 대한 수요는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홍정백 기자

곡성미래교육재단

우수 대학생 등록금 지원

곡성군미래교육재단은 성적 우수 대학생에게 최고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성적 우수 대학생 120명을 선발하고 6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지난해 80명에서 40명이 늘었다.

또 성적 우수 고등학생은 30명을 선발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5월 중 각급 학교에 안내해 장학생을 추천받을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성장지원 장학생으로 초·중·고 학생 30명을 선발해 1인당 20만원, 중학생 30명에게는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예체능과 기능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이나 학교 체육팀,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들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한다.

보성군장학재단, 상반기 장학생 341명 선발... 15일까지 모집

보성군은 (재)보성군장학재단이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올해 상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본인·부모가 공고일 현재 보성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초·중·고교생과 대학생(대학생 본인은 타 지역 주소 인정)이다.

선발 분야는 성적 우수 80명, 미래인재 66명, 희망나래 16명, 보급지리 57명, 한울타리 39명 등 10개 분야다. 모두 341명에게 3억35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학교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장학금은 6월 중 지급된다.

광양, 우산문화공원 이용자 편의 증진 먼지떨이기 설치

광양시는 우산공원 산책로를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에 먼지떨이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2년 문화공원으로 지정된 우산공원은 공원 내에 유아숲체험원, 썬트리아터, 바닥분수 등 즐길 거리와 이규영 문화동산, 매천 황현·설성 김중호 동상 등 역사 문화적 가치를 갖추고 있다.

특히 수국, 꽃무릇, 편백 등 꽃과 숲이 어우러진 다양한 노선의 산책길이 조성돼 있어 이용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속해서 먼지떨이기 설치 수요도 높아졌다.

먼지떨이기는 기존 압축방식과 달리 안전하고 잔 고장이 적으며 저소음의 장점이 있는 송풍방식의 기기로 설치했다.

보성,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안전 교육 진행

오는 11월까지 12개 읍면 오지마을 교육 실시

보성군은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지난달 21일 벌교읍 추동리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월 실시된 순회수리는 21일 벌교읍 추동리와 28일 노동면 광곡리에서 전담팀이 나서 농업인들의 농기계 고장진단, 자가 정비, 부품 교체 요령 교육, 농기계 고장 예방 방법 및 안전 사용 요령 교육 등을 실시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농기계 정비 비

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비 부품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부품을 지원해 농업인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보성군은 올해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 전담팀이 구성돼 벌교읍 추동리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30회에 걸쳐 12개 읍면 오지마을의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예초기, 방제기 등의 농기계 점검·수리와 농업인 안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에 놓이는 만큼 농기계 정비 및 안전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 바란다.”라며 “수리가 필요한 관내 농업인은 각 농민 상담소에 일정 확인 후 앞으로 진행될 순회수리 교육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9개 마을 579개 농가에서 375건의 정비, 573건의 수리를 진행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과 찬사를 받았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 중마동 ‘푸른 중마동 만들기’ 범시민운동 출범

관내 8개 사회·봉사단체가 참여... 봄꽃 8000본 식재 ‘감동정원’ 조성

광양시 중마동은 관내 8개 사회·봉사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푸른 중마동 만들기’ 범시민 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는 중마동통장협의회, 중마동지역사회종합협의체, 중마동바르게살기위원회, 중마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중마동새마을부녀회, 가야봉사단, 금빛소리그린봉사단, 광양시여성상친회 등이다.

이번 협약 후 협약단체 구성원과 동사무소 직원 등 80여 명이 참여해 광양마동도서관 옆 부지(마동 1059)에 라넌쿨러스, 팬지, 비올라, 데이지, 금잔화, 꽃잔디 등 봄꽃 8,000본을 식재 ‘감동정원’을 조성했다.

중마동과 각 협약단체는 “많은 단체에



감동정원 만들기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푸른 중마동 만들기’ 범시민 운동을 확산시키고 탄소중립 녹색도시 광양 실현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서 ‘푸른 중마동 만들기’ 범시민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중마동을 더욱 다채롭게 꾸미고 행복과 심신의 치유를 느낄 수 있는 감동정원으로 가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 ‘나이트 가든투어’ 시범운영

국가정원 개막 맞춘 프리미엄 관광콘텐츠 구성

순천시는 순천국가정원 개막에 맞춰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국가정원 야간 프리미엄 투어 프로그램 ‘나이트 가든투어’를 시범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일 최대 40명까지 참여 가능하고 18시 20분부터 21시까지 진행되며, 시크릿 어드벤처, 스페이스 허브, 수상 퍼레이드 등으로 대표되는 순천국가정원의 새로운 콘텐츠를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야간투어에는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리뉴얼된 시설 및 각종 테마 정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순천국가정원의 화려한 야간경관을 한층 더 깊이 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투어는 도보코스, 승선코스 2가지 방식으로 구성되며, 도보코스는 시크릿 어드벤처, 스페이스 허브 등을 보다 세밀히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승선코스는 시크릿 어드벤처 관람 후 수상퍼레이드 선박에 승선하여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한편, 이번 투어 예약은 별도 예약시스템(www.nightgardentour.c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용 요금은 성인기준 1인 도보코스 13,000원, 승선코스 18,000원이다. 투어 참여와 관련된 유의사항 등은 예약시스템 상세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순천=조순익 기자

4월은 낙지·개불 체절... ‘미식 여행지’ 고흥으로 떠나볼까?

뭉개고도 맛있는 낙지탕탕이·개불로 스테미나 충전하세요

봄의 싱그러움이 넘치는 4월, 사계절 청정바다의 맛깔스러운 수산물이 풍성한 ‘미식 여행지 고흥’을 추천한다. 4월의 고흥 바다는 낙지, 개불, 해삼, 소라로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풍성한 고흥 밥상을 제공한다.



생김새와는 완전 다른 반전 매력의 ‘개불’은 5월 전까지만 맛볼 수 있어 지금 꼭 한번 맛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다.

개불에는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해 알코올 대사를 촉진시켜 숙취 해소와 간장 보호에 탁월하다. 껍질과 함께 섭취하면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킨다.

먹기 좋게 잘게 썰어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 먹는 ‘낙지탕탕이’는 입안 가득 바다향과 고소함을 선사하고 스트레스와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줄 것이다.

로도항길 128를 방문하면 낙지는 3마리에 1만 원 내외에, 개불은 4마리에 1만 원 내외에 구입할 수 있고 인근 음식점에서 낙지탕탕이, 낙지볶음, 개불 회 등으로 조리해 맛볼 수 있다. 가격은 그날그날 바다 날씨와 출하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농동향 인근에서 피곤함에 지친 몸을 위로해주었다면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 들려 별빛 품은 밤하늘에서 도시의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받아보자. 고흥우주천문과학관은 우리나라 최대급 관측 장비 보유하고 있어 가족, 연인과 함께 별자리 여행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야경은 전국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신비로운 별과 아름다운 다도해가 만나는 곳,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이 되는 낭만적인 시간을 가져보길 추천한다.

/고흥=신용원 기자

구례,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 개최



구례군은 지난달 29일 제79회 식목일 나무 심기 행사를 산동면 둔사리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목일을 앞두고 열린 나무 심기 행사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유시민 구례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구례군청과 구례군산림조합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일야 1만㎡에 백합나무 3천 본을 심었다.

이번에 식재한 백합나무는 타수종보다 탄소 흡수력이 좋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 또한 재질이 좋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나무껍질, 뿌리 등은 약재로도 쓰인다.

구례군은 이번 나무 심기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지나 목재 수확 벌채지, 경관 보존지 등 45ha의 산림에 편백, 백합, 산수유, 은나무 등의 조림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권 주변과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 800ha의 산림에는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숲의 공익적, 경제적 가치를 높여갈 계획이다.

김순호 군수는 “기후변화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나무 심기를 통해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